

## 2015 학회장 인사말

10학번 한승수

2015년 정신없지만 즐거웠던 을미년이 어느덧 지나가고 2016년 병신년이 시작되었습니다.

“변화는 우리가 누군가나 무엇, 혹은 후일을 기다린다고 찾아오지 않는다.

우리 자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사람이고 우리가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변화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명언입니다.

2015년도에 저희 제.대로 철학과 학생회에서도 멋진 변화를 위해 많은 것을 도전해 보았습니다. 멘티 제도, 필라소피 밴드, 체육대회 응원 및 퍼포먼스, 축제 주점 또한 다시 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네르바의 향연에서는 토론의 토크쇼화, 영화제, 가요제, 밴드공연, 연극의 뮤지컬식 진행이었습니다. 모든 행사가 완벽하거나 잘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서로 잘하려는 마음에서 작은 트러블도 항상 있었고, 너무 힘들다는 생각을 한 적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항상 행사가 끝나면 웃음이 넘쳤고 좋은 추억으로 마음속에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여러 도전이 끝나고, 우리가 제.대로 변화를 시도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참으로 멋지고 감사한 2015년이었습니다.

젊음은 그 자체로 아름답다. 젊다는 것은 순수하다는 것이며, 젊

다는 것은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는 꽃봉오리와 같다. 젊은이는  
가식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무엇이건 시도할 수 있는 진취적인  
기상을 간직하고 있다. 젊은이는 꿈을 간직하고 있고, 이상을 희망  
할 수 있다. 교수님이 해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꿈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는 대학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6년에 우리 과는 더 많은 도전과 변화로, 가장 멋지고 재밌  
는 학과가 될 거라는 기대가 듭니다.

2016년의 철학과 학생회의 슬로건은 흥.이.날.철 학생회입니다.  
흥이 나는 신나는 철학과, 또 우리 학과를 일으킨다는 뜻으로도  
보입니다. 때론 무모한 용기가 큰 기적을 불러온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것에 불확실성을 보고 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  
만 2016년 철학과에서는 자신들을 믿고, 학우들을 믿으며, 2016년  
의 꿈을 향해 열정적으로 도전하고 즐긴다면 슬로건대로 아주 의  
미있는 철학과가 큰 기적을 일으킬 것 입니다.

2016년에는 신입생들과 재학생들 또한 졸업생선배님들, 조교선  
생님, 교수님들 모두의 철학과 가족들이 즐기고, 가장 기억에 남는  
제.대.로 흥.이.나.는 한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최고가 될  
수는 없어도 항상 최선을 다하는 멋진 철학과 기대하겠습니다.